

제4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 2017. 6. 19(월) 16:00-16:3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 석 자 : 최종석의장, 이원식의원, 김창남의원, 정미애의원, 박연석의원, 가인숙의원,
김의찬의원, 김호중의원 이상 8명 >

< 불참석자 : 이문선(덕중), 남용광(진성), 신동호(거성) 이상 3명 >

< 배 석 자 : 송병진, 권정만 팀장 이상 1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47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재적의원 11명 중에서 참석의원 8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의 >

사회자 : 기획관리처장의 공석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교 대학원장이신 최종석 의원을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최종석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금강대학교 학칙 개정(안), 금강대학교 학사내규 개정(안), 금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금강 2025+), 금강대학교 중장기 개정계획(수정)(안)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칙 및 학사내규의 개정(안)에 대해 해당 주무부서인 교무지원팀장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지원팀 박연석팀장의 자료에 의한 설명]

최종석 의장 : 이미 학칙에 의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의견을 받았고, 교무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문구 자구 수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찬 의원 :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연석 의원 :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학생회 등에게 직접 별도로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미애 의원 : 올라온 심의자료를 보아하니, 잘 수정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종석 의장 : 학칙변경(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전체참석의원 : 없습니다.

최종석 의장 : 그럼, 학칙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인 학사내규 변경

안에 대하여 심의 논의하겠습니다.

이원식 의원 : 학칙변경(안)과도 마찬가지로, 의견수렴 및 교무회의에서도 일부 문구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석 의장 : 학칙변경(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전체참석의원 : 없습니다.

최종석 의장 : 그럼, 학사내규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참석의원 : 동의합니다.

김창남 위원 : 다음은 금강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및 특성화(안)과 금강대학교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의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 권정만팀장 자료에 의한 설명]

최종석 의장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무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오늘 새롭게 참석하신 김의찬 의원과 김호중 의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찬 의원 : 이미 작년에도 설립된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또 다시 수정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학교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좀더 수정 보완된 학교발전계획과 재정계획에 맞춰 잘 집행되어 구조개혁에서 벗어나 명문 금강대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중 의원 :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25 금강'의 수정 보완인 '2025 금강 플러스'로 명명하여 중장기 대학발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학부발전계획서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도 하시고 특히 학부발전방안은 교수님들께서 직접 참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보다는 계획서에 대한 절차적 당위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계획서 는 모두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원식 의원 : 글로벌문화협력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대학이 건학이념과 인재상,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시대적 변화를 검토하고 우리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해 5개 중장기 목표, 잘 가르치는 대학, 즐겁고 알찬 공동체, 동아시아 네트워크 허브, 혁신하는 대학 시스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학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11가지 전략 방향, 창의융합 양성교육, 학생중심의 교육의 질 관리,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함께 생활하며 학습하는 RC, 불교 연구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 동아시아 시장 전문가 양성 교육, 경영시스템 선진화, 창조적인 공동체 문화, 불교 현대화의 메카, 융합교육의 요람, 아름다운 ECO 캠퍼스 등으로 방향 설정하고 세부적인 전략 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미애 의원 : 한편, 우리 대학의 대학 교육의 질과 성과에 대한 제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제2의 창학’ 정신으로 전년에 수립된 특성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하였으며, 전년 수립한 특성화 분야인 ‘불교’와 ‘친디아’를 보다 구체화하여 ‘불교 현대화’와 ‘친디아 시장’으로 수정하였고 이는 계획의 실행가능성과 성과의 명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불교 현대화’는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타 대학과 차별화된 정체성이자, 우리 대학의 가지고 있는 불교 교육 및 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특성화 목표이며, 또한 불교학은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인문학적 기반이자 우리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 및 문화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사회적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권정만 팀장 : 네, 맞습니다.

가인숙 의원 : 또 다른 ‘친디아 시장’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국 및 인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문화협력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미래 성공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학습해야 할 전략 포인트인 것 같으며, 특히 친디아는 불교 발상국 및 융성국으로 우리 대학은 그동안 종교 문화 교류를 통해 축적된 협력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영어 및 중국어를 필수로 학습하도록 하고 경영 및 통상 전공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현 교육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특성화 목표이어서 우리 대학은 ‘불교 현대화’와 ‘친디아 시장’ 두 개의 축을 특성화 계획의 근간으로 삼고, 전략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비전인 ‘글로벌 문화협력의 중심’에 다가가는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기대합니다.

권정만 팀장 : 네, 맞습니다.

김창남 의원 :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재정 계획은 2016학년도 재정환류분석을 통해 수입지출의 내용을 분석 내용을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자원 다면화 및 목표 수익 목표 설정의 현실화 수정을 하였고, 향후 필요 예산 파악 및 검토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6년 했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권정만 팀장 : 네, 맞습니다.

최종석 의장 :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은 구조개혁을 위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금강대학교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의원 : 본 회의에서는 계획으로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보다 그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면, 본 계획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공모전 및 내부 회의 등을 통한 학교 발전의 의견을 이미 개진한 상태입니다. 잘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조개혁평가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석 의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체참석의원 : 네 없습니다.

최종석 의장 : 그럼, 바쁜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47차 대학평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서언과 함께 회의를 마침]

최종석 의장 : 자료에 의해 설명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평의원회의는 2016학년도 결산(안)자문의 건입니다. 이미 종단의 종의회 등의 심의 등을 진행하였고, 이사회에 앞서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자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안)에서 다른 때와 크게 다른 것은 임의건축기금 적립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연석 의원 : 정부 규제 개선에 따라 당초 교비회계에서 기타이월금은 교비회계 수입 총액 대비 2% 한도에서 등록금회계 수입 1.7% 이내로 변경이 되면서, 본교 같이 11월에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평의회에서 자문을 이미 한 대학의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간의 전출을 통해 이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난 평의회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실제 적립금이 2억 6,500만원입니까?

권정만 팀장 : 등록금 이월금 기준에 맞춰 2억 6,5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김의찬 의원 : 학생경비 및 학생지원경비 등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권정만 팀장 : 학생 경비 및 학생지원경비와 그안에 들어있는 장학금 및 학비감면이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전체 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경비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개선이나 구내식당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고정성 경비도 있습니다. 혹시, 학생회나 학생들의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학생 경비나 학생지원경비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과 주장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의원 : 종의회에서 전기료 등 절약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권정만 팀장 : 네, 종의회에서 전기료 등 절약 방안 마련을 권고받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기술적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구성원 차원에서는 전기료 등 절약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창남 의원 : 학생회 차원에서 전기 절약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하면 어떨지요?

김의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원식 의원 : 금강대학교 경우 예산의 경직성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에서는 종단의 전입금이 비율이 높고, 지출에서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고정적 경비 비율이 높기 때

문인데, 이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우리대학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연구학생경비나 환경개선 및 정보화 등 캠퍼스 개선 등의 우선 순위 문제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정만 팀장 : 이원식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선 순위에서 예산배정이나 편성 문제에서 각자를 생각하기 보다는 학교나 전체를 생각해 주시는 내부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종석 의장 : 이번 결산의 경우 지난 2016학년도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예산집행에 반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료의 원안과 같이 자문하여 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체참석의원 : 동의합니다.

최종석 의장 : 동의에 감사드리며, 그럼 2016학년도 결산안에 대해 자료 원안과 같이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곧장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46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침>